

GGG51



경기신문이 만났습니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늘 새롭게, 더 놀랍게, 똑 바르게 ‘경기’를 밝히겠습니다

“혁신과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첨단 산업과 더불어 전통 제조업에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장은 기술 기반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경과원을 이끌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현재 반도체와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된 경제 구조 탈피를 목표로 새로운 세대와의 협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챗 GPT 등 파괴적 AI기술의 등장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형 기술창업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를 위한 ▲미래산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돌파구 마련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가장 시급

‘전통 제조업+신기술’ 발상 전환 필요

혁신적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만들어 주고

성공사례 제공하고 윈스톱 창구 지원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산업 육성 ▲역동적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영혁신 적극 추진 등 네 가지 방향을 내놴.

특히 첨단산업 육성과 혁신적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등을 우선으로 꼽았다.

강 원장은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뿌리, 섬유, 가구 등 전통 제조업이 전통 산업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상의 전환을 하자. AI를 접목하고 젊은 스타트업 벤처들도 협업을 하게 하는 등 전통 제조업도 신산업으로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뿌리산업의 인력 문제와 비용 부담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강 원장은 “뿌리산업은 상당수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대체되고 고령화되고 있다. 이 같은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라고 평가했다.

또 “특히 뿌리 업종은 에너지 소비 업종인 경우가 많은데 최근 전력요금과 고금리에 의한 이자부담 등 비용문제가 해결해야 할 두 번째 과제”라고 했다.

강 원장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경과원이 다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시 활력을 찾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에 경과원은 신산업본부의 디지털제조혁신팀을 통해 민간이 벤처마케팅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과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AI산업팀, 에너지산업팀, 디지털제조혁신팀, R&D산학협력팀, ESG팀을 설치했다.

특히 경제 부문 ‘1번 조직’으로 스타트업본부(스타트업지원팀, 스케일업지원팀, 스타트업 인프라팀)를 내세우며 혁신형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 원장은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 그리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도의 광고테크노벨

리와 같은 클러스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창업 가치사슬’을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G-INVEST추진단을 신설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목표인 100조 원 투자유치를 위해 도정을 지원하고 1조 규모 G-펀드 조성 등 실질적인 경기도 투자청 역할에 나선다.

경과원은 첨단 신산업 성장과 더불어 기존 경기도의 경쟁력인 반도체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강 원장은 “경기도에 제일 많이 있는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윈스톱 창구를 운영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 내부적으로는 안전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챗GPT 활용 등 경영 역량을 제고하는 등 ‘조일류 경영혁신’을 시도한다.

경과원은 기존 ‘원장 1감사 2이사 1처 7본부 33부서’ 체계 조직을 개편해 ‘원장 1감사 2이사 1처 7본부 38부서’ 체계 조직을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강 원장은 “최근 수출 부진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 경과원부터 경제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산학연 협업을 통한

혁신기반 조성

전주기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

현장 소통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경영효율을 통한

사회적가치 구현

전략 방향 Strategy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역량

창의혁신

현장감동

안전신뢰

1.강성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이 2023 지퍼어 아세안플러스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강성원 원장이 ㈜신한세라믹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